

“ 행동하는 사랑 ”

■ 이종윤 원로목사

사도 바울은 감상적인 사랑을 넘어 악과 구별된 진실한 사랑을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치고 있다.

<형제를 사랑하면>(필라스톨게)는 형제사랑(필리아)과 가족사랑(스톨게)의 합성어로 형제를 가족처럼 사랑하라 한다. 그리스도인은 종족, 국적, 직업, 교육, 부가 어떠든지 한 가족이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존경하기를 먼저하며>사랑엔 존경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높이는 마음이 존경이다. 존경하려면 내가 겸손해야 된다. 존경하되 먼저 하라 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심이 사라진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젊은 자는 장로에게 순복하고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 수도 있다. 사랑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한다. “두고 봅시다” 할 때는 이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전쟁터의 군인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도와 줄 사람이 많았는데 잠깐 늦추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사랑의 수고 없이 다른 기적은 바랄 수 없다. 수치 중 가장 큰 수치는 게으른 생활이다. 부지런한 것이 성도의 삶이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이 말은 성령으로 뜨겁게 끓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은 사람은 성령으로 끓게 되어 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무슨 일이든 감당케 된다. 미지근한 것은 주님께서 토해내시겠다 하셨다. 이처럼 사랑엔 열심히 있어야 한다. 주를 섬기는 일은 열심을 품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것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소망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임으로 그 소망 때문에 성도는 즐거워한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즐거워했다. 대개 불신자는 과거는 미화하고, 현재는 고통스럽다 하고, 미래는 절망적이라 한다. 그러나 신자는 과거엔 멸망의 자식이었으나, 현재는 감사가 충만하고 미래는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한다. 전자는 갈수록 태산이지만 후자는 갈수록 희망적이다.

<환난 중에 참으며>환난을 만날 때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이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구원)을 이루신다 했으니 참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 나는 운동 경기를 실황중계보다 재방송 보기를 좋아하다. 결과를 알고 보는 시청자는 가슴조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슬아슬할 때 더 스틸을 느끼며 그러나 이기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이루신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기도하되 숨을 쉬듯 항상 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 주님은 “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다. 해석상 난해 구절이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면해 달라 하신 기도를 하셨나?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죽을 지경의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였다. 그 고통은 “남의 죄를 지시는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한 또는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하실 만큼 천사가 시중드는 응답의 표시를 받으시고도 다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힘써 하셨다. 이것이 성도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고 기도자의 황금률이다.

-한국장로신문 2018년 2월 17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림을 감사하며, 재림을 갈망하며 우리의 영성도 더욱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빚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찬양예배 시에는 교육부서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성탄축하 특별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며, 다음세대를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23일(금) 저녁 8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감사의 캐롤을 부르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탄감사 금요기도회에 모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218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영,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이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허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년(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영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달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말씀대로 이루시다 ”

■ 마 2:13-23
 긍정성과 낙천성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면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왕국을 멸망시킨 시기에 예루살렘에 울러 퍼진 예언자들의 외침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희망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들은 거짓을 말하나이다.'(렘 27:14)라고 왕에게 간언했습니다. 희망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낙천주의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가능하고 희망은 주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힘겹고 암울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벅찬 미래를 약속하시는 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비극적이고 광포한 세상에 희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 1. 비극적 사건들**
 헤롯왕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병적이었습니다. 권력 때문에 아내도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새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경악할 소식이었고, 베들레헴 아기들의 집단 살육으로 이어졌습니다. 헤롯의 지나친 권력욕과 무지와 오해가 빛은 참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권력에 대하여 경쟁도 위협도 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무지했고 예수님의 왕권이 세상 나라 권력을 의미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인간 세계에 비극을 줄이는 길은 영적 무지와 오해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우리 사회의 주류지성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반지성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앙의 반지성주의는 논리와 객관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맹목적 광신주의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했고 '우리가 여호와의 알자 힘써 여호와의 알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룩한 지식으로 시대를 이끌어야 구원 받는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 2. 말씀이 이루어지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일생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표현이 13회나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사건들이 우연발생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 있는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구약은 그리스도 오실 것의 예언이 되었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성취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탄생, 살해위험과 피난 등 모든 일들이 이미 말씀에 예언된 내용의 성취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 섭리 가운데 위치한 핵심 역사임을 증명합니다. 어리신 메시야는 구유에 출생하셨고 피난길의 수고로움과 생명의 위기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크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목적을 향해 전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렘 33:2)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포기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 3. 다시 애굽을 떠나시는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애굽을 떠나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했습니다. 이를 두고 '메시아의 출애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헤롯은 권력의 연구화를 꿈꾸며 잔혹한 살육을 계속했지만 예수님 탄생 후 다음해에 죽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칼을 가진 자의 강한 힘은 자칫 세상을 파멸하게 하는 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유탄생, 생명의 위협, 애굽으로의 피난 등으로 이어지는 구세주의 무력한 시작은 세상을 구원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아들 아겔라오는 아버지가 못지않게 잔혹한 인물이었다고 때문에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사명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이 가족은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피난처를 떠나 사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는 한 분 어린 예수님의 행보가 세상의 빛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안용근 목사	차도훈 장로
III 오후 2시	조동수 목사	조동수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사 62:10-1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9(1절) ...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8(구주강림4)...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10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2:13-2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말씀대로 이루시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126...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설교: 안용근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사 7:14 인 도 자
찬 송	125 다 함 께
기 도	유은철 집사
찬 송	104 다 함 께
성 경	마 1:18-2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임마누엘” 설 교 자
특별찬양	교육부서
* 찬 송	115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장석남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박종숙 권사 II부: 남영주 권사
성 경 왕상 13:1-1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여로보암의 만행”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원영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설 교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소식

◆ 모 임

1. 중등부 찬양팀 모임 / 18일(주) 오후 12시 - 16시 802호
2. 스테반 회의 / 18일(주) 오후 1시 - 15시 609호
3. 교사 총회 / 18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4. 한나전도회 월례회 / 18일(주) 3부 예배 후 502호
5. 리브가전도회 총회 / 18일(주) 3부 예배 후 602호
6. 에스더전도회 총회 / 21일(수) 수요일 1부 예배 후 802호

◆ 알 림

1.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3.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6.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오후 1시
7.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8.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9.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0.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1.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2. 성탄절기예배 안내 / 이번 주간은 성탄절 기간으로 모입니다.
성탄감사 금요기도회 : 23일(금)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립니다.
성탄새벽 예배 : 25일(주) 오전 5시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립니다.
성탄축하감사 예배 : 25일(주) 1, 2, 3부 주일예배로 드리며 성탄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최하은	1교구	고등부	본인	김병익	3-7	유아부	본인
신두철	3-3	엘리아	본인	박원정	4-7	마리아	본인
김은경12	3-3	마리아	본인	이준원2	4-8	빌립	김지영6
신지수	3-3	고등부	본인	연도형	9-1	빌립	박재영3
신동혁	3-3	중등부	본인	연다은	9-1	영아부	박재영3
조은혜	3-7	뵤 뵤	본인	연준모	9-1	영아부	박재영3
김병윤	3-7	유년부	본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529명	982명	2,511명	406명	1,692명

성탄의 신비

인간이 신이 되어 보겠다는 것은 무속 종교의 꿈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 오셨다는 성육신의 신비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풀 수 없는 신비다. 재래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오신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데 또 하나의 풀기 어려운 신비가 있다. 인간들이 자기의 소원과 한을 풀기 위해 신에게 제물을 바친 일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사례들이지만 신이 인간을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자기를 바쳤다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모두가 인간 상식과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다.

“이 신비를 저희로 깨달을 수 있는 금년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써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십시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